

LG이노텍, 자율주행 필수 부품 공략 가속화

5G-V2X 통신 모듈 개발 성공
1세대보다 4배 빠른 150Mbps
2025년까지 상용화 목표

LG이노텍이 사물간(V2X) 원거리 데이터 송수신 속도를 대폭 개선하며 전장 부품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LG이노텍은 5G-V2X 통신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V2X 통신 모듈은 자율주행 시대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평가받는다. 자율주행차가 하루에 만드는 데이터가 평균 4TB 수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빠른 속도를 가진 통신 모듈 수요도 늘고 있다.

이번 제품은 5G 차량 통신을 본격 지원하며 성능을 크게 높였다. 킬캠칩을 기반으로 RF회로 등을 결합한 모듈 형태, 차량 내부나 루프쪽 차량통신 기기에 장착해 차량과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인프라간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송



LG이노텍은 더 작고 빠른 2세대 5G-V2X 통신 모듈을 개발했다.

수신할 수 있다. 다운로드 속도가 150Mbps로 2019년 세계 최초로 출시했던 1세대(35Mbps)보다 4배 이상 빠르다.

LG이노텍은 직사광선·발열 등으로 인한 고주파 5G 신호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90℃의 고온에서도 온전한 품질을 유지하는 5G 차량통신을

제공한다. 이 같은 내구성 강화로 1~1.5km에 달하는 원거리 차량·사물간 통신 커버리지도 5G망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크기도 종전보다 20% 작아졌다. 신용카드 절반 크기인 가로와 세로 46mm, 50mm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1세대(480여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800

여개 부품을 탑재했다.

국가와 지형, 차종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해 호환성도 높다.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3GPP)의 최신 5G 표준을 적용했다.

LG이노텍은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전장 부품사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추진 중이다.

유병국 전장부품사업부장은 “2세대 ‘5G-V2X 통신모듈’은 자동차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 핵심 부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LG이노텍은 ‘미래차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차량 전장 혁신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CP 한국사이버결제 영문 상호로 변경

NHN한국사이버결제가 ‘NHNKCP’로 사명을 변경하고 회사의 정체성과 성장성을 확대해 나간다.

NHN KCP는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이하 NHN한국사이버결제)’에서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이하 NHN KCP)’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뀐 사명은 기존 영문 상호인 ‘NHN KCP Corp.’과 동일하다. 그동안 법인 한글 상호인 ‘NHN한국사이버결제’와 영문 상호인 ‘NHN KCP’를 혼용해 왔다.

NHN KCP로의 사명 일원화는 창립 25년을 맞아 결제 파트너사로서의 사업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 중 하나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넥슨, 변조 핵 논란 사과… “클라이언트 보안 강화할 것”

메이플스토리 CRC 기능 체크 안 해
예전부터 있던 문제… 사용자 신뢰 ↓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변조 핵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클라이언트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달 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내서 벌어진 클라이언트 변조 핵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클라이언트는 온라인 게임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클라이언트를 변조하는 방식의 게임 핵을 통해 보스 몬스터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처치하고 게임 내 비싸게 거래되는 아이템을 무더기로 얻은 정황이 포착

됐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런 핵은 수년 전부터 암암리에 이용됐다”며 “이는 CRC기능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RC기능은 데이터가 손실, 변경없이 전송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담당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거듭 사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넥슨은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인 CRC체크 방식을 개선했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는 영구정지 조치를 하고 전했다.

또 운영 정책 개정안을 발표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대한 제재 수준을 올릴 방침이다.

지난 17일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게임에서 중요한 공정성에 대한 환경을 구

축하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를 확인할 때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 선별 체크 했지만 해당 허점을 이용해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앞서 논란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클라이언트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채증하고 있고 현재 파악된 모든 상황에 대해 저작권, 형법,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넥슨은 지난 19일 핵사용 방식을 이용하는 계정 2개를 영구 제한했고 지난 24일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계정 670개를 제한한 바 있다.

또 넥슨은 이달 말 운영 정책 개정안을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제재 일수와 강도를 상향해 제재 수준

을 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넥슨의 늦깎이 대처에 대해 지적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자들은 포털을 통해 “수년전부터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다수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체제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신뢰가 떨어졌다”, “이번 논란에 대한 대안도 특별히 구체적이지 않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메이플스토리는 20년 가까이 된 게임이다 보니 보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용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BM(수익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보안 같은 기본적인 영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빛나 기자

LGU+ 수도권 광고 커버리지 딜라이브와 1위 도약

LG유플러스가 수도권 최대 케이블 방송사 ‘딜라이브(D-LIVE)’와 광고매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 제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오는 7월부터 자사 통합 광고 운영 플랫폼인 ‘U+AD’를 통해 딜라이브 광고를 송출한다. 지난해 광고사업의 DX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한 U+AD는 TV·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 상품을 청약부터 운영, 결과 리포트까지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가입자가 밀집돼 있는 딜라이브와 협력으로 LG유플러스는 광고사업의 수도권 커버리지를 기존 대비 50% 추가 확대하며 유료 방송 플랫폼 중 1위로 발돋움했다.

/채윤정 기자 echo@

포스코, PLA 리사이클링 사업 나서

콜비온·이솔산업과 기술 개발
사용량 比 재활용 산업 전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하 PLA)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 PLA제품 사용량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리사이클링 관련 산업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전략적 선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네덜란드 토탈에너지스 콜비온, 국내 기업인 이솔산업과 PLA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토탈에너지스 콜비온은 PLA 분야 글로벌 2대 제조사 중 한 곳이며, 이솔산업은 국내 PLA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탈에너지스

스 콜비온은 PLA 생산 노하우를 활용해 리사이클링 플랜트 구축을 위한 기술 이전을 돕고, 이솔산업은 폐기된 PLA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금 지원과 함께 전체적인 기획과 관리를 맡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20년 기준 104억6000만달러(약 12조원) 규모에서 2025년에는 279억1000만달러(약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바이오플라스틱인 PLA의 경우 2020년 19억 2000만달러(약 2조원)에서 2025년에는 56억 5000만달러(약 6조원)로 전망되며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연평균 성장률보다 2.4%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양성운 기자 ysw@

동국제강, 태양광 자가발전설비 구축

포항공장 지붕 5만평에 125억 투자

동국제강이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가 발전 설비를 도입한다.

동국제강은 총 125억원을 투자해 포항공장 3개동 지붕 5만평에 태양광 자가발전설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설비는 10MW급 자가발전설비로 연간 약 13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동국제강은 매해 전기료 약 15억원을 절감하고, 연 6000톤의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태양광 발전 구조물에 고내식성 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GIX를 적용했다. 동국제강이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용으로 개발한 친환경 철강 제품이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동국제강 탄소배출량은 철강업종 전체의 2%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기존 대비 10%의 탄소 배출 추가 절감을 목표로 친환경 지속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당진공장 ‘태양광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3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온 바 있다.

/양성운 기자

컴투스 글로벌 시장서 ‘크로니클’ 성과

최근 ‘크로니클’이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컴투스의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크로니클은 글로벌 시장 및 스팀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 현재 일매출 10억 원을 기록 중이다. 또 이 게임은 태국,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에서 스팀 동접자 수 2만 5천 명 이상을 유지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컴투스가 신작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의 초기 흥행과 출시 예정 신작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고 29일 분석했다. /최빛나 기자